여성위원회 자료집

2015년 교회여·남평등 주간

2015년 12월 6일(일)~12(토)

“여성이 보는 국가폭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목 차】

인 사 ..... p. 1

취 지 ..... p. 2

설 교 ..... p. 4

기 도 p.11

특 별 기 도 p.14

우리의 다짐 p.15

만 든 이 p.16

【인 사】

NCCK 여성위원회는 2015년 교회여 · 남평등주간 동안에 “여성이 보는 국가폭력”에 관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이 단순히 ‘균등’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대한 단호한 거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일, 곧 성정의(gender justice)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폭력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폭력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약한 존재라 여길 때면 더욱 쉽게 폭력을 가합니다. 국가와 권력은 국민 혹은 시민들로부터 일정 기간의 봉사를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공권력을 이용하여 국가가 폭력을 행사할 때는 더없이 많은 희생을 야기합니다. 종교인으로서, 기독여성으로서 그 국가와 권력,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 ‘생명’, ‘평화’의 가치를 얼마만큼 실현하는 지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NCCK 여성위원회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기억과 진실규명, 정의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304명이 스러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사와 그 이후 국가가 희생자들, 미수습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행한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생명을 낳고 키우고 보호하는 여성들은 억압과 국가 폭력의 희생자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강력한 저항의 주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욱 깊은 기도, 더욱 깊은 저항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 소리, 라헬의 울음소리를 들을 귀가,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있습니까?

고통의 소리가 들릴 때 그 곁에 서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여성의 소명입니다. 국가와 공권력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 또한 기독여성의 사명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곁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 성 위 원 회
위원장 최소영 목사

【취 지】

교회여·남 평등주간

(2015년 12월 6일~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2000년부터 세계인권의 날이 있는 주간을 "교회여남평등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성이 보는 국가폭력"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세월호 문제'를 재조명하려 합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교회여성들의 비판적 성찰을 다시 시작합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2015년 교회여·남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이 보는 국가폭력'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은 오늘 한국사회에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국가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입니다. 여성들은 국가주의와 전쟁, 국가의 성차별적 정책 등에 대해 지금까지 생명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비판과 제안을 계속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여성들이 더욱 국가의 반생명적 처사를 고민하게 했고, 특히 교회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한국사회의 국가폭력에 대해 더 깊은 성찰과 기도가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뚜렷한데, 가해자는 국가라는 거대 조직에 묻혀 책임을 회피하는 이 현실을 여성의 시각에서 검토하자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성위원회는 교회 여성의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드러난 국가폭력을 바라보려 합니다.

한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국가'라는 존재를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을 두려워합니다. 맞벌이 혹은 최저생계비 생활을 탈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을 최대한 늦추려 합니다. 201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산이 평균 31세에 이루어지고, 한 자녀만 출산하는 추세입니다. 국가는 출산장려정책을 말하면서도 사회복지 측면의 안전망을 세우는 데에는

무관심합니다. 때때로 무상교육을 운운하지만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흐지부지되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명을 위한 국가 정책은 부재하며,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안겨줍니다.

특별히 분단의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전쟁의 공포와 분노, 그리고 생명파괴의 가능성에 노출된 채 위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관계는 한국사회의 이러한 위험지수를 더욱 더 고양시키고 있으며, 이로부터 군사주의의 반생명적 사회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자유와 행복은 전쟁불안 속에서 박탈당했고, 우리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군사주의, 개발, 경쟁, 거짓과 강자의 굴레 속에서 점점 '생명의 세계'를 잃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국가의 상시적 폭력 앞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늘 위협받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4명의 생명들이 수장되는 것을 우리는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고, 단 한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이후 국가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라'고만 합니다. 국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로막으며, 생명의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로 전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갈망을 꺾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력의 그림자와 같은 국가! 이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적 성찰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요5:19-29) 교회는 '생명의 세계'를 선포하라는 선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평등세상, 희년세상이 실현된 국가(교회)를 원합니다. 권력이나 구조를 지켜내기 위하여 생명을 도구화하거나 대상화하려는 현실에 저항하며, 생명 그 자체의 존엄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 폭력이 더 이상 당연하게 자행되지 않는 나라, 공동체를 꿈꿔봅니다. 이에 여성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성찰과 저항할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리려 합니다.

【설 교】

억압과 폭력에서 생명을 구하리니

시편 72:12~14

12 그는 하소연하는 빈민을 건져주고 도움 받을 데 없는 약자를 구해 주며
13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에 시든 자들을 살려주며
14 억울한 자의 피를 소중히 여겨 억압과 폭력에서 그 목숨 건져주리이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 6:11)

창세기 기자가 땅에 가득한 폭력을 고발하듯 인류는 언젠가부터 파괴적 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지배하고 힘을 숭배하는 세상이 된 이후부터입니다. 가부장적 폭력, 제국의 폭력, 인종과 소수민족에 가해진 폭력, 경제계급 안에 발생하는 폭력, 위계적 사회의 각종 주인지배의 폭력과 군사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힘을 가진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이 폭력들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폭력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생명과 평화를 파괴시키는 힘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지난 세기 인류는 광범위하게 만연한 폭력에 대한, 또한 그간 이야기되지 않았던 폭력들에 대한 ‘이름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던 폭력들이 하나씩 우리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성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던 성차별 폭력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도 사람’임을 외쳤습니다. 소수민족도 사람임을, 유색인도 사람임을. 폭력으로 인간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당한 이들의 고발과 증언의 역사 안에서 교회 또한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클라우드 마리 바버 (Claude Marie Barbour)라는 개신교 선교사의 '권력남용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치유와 화해'에 대한 수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온 수도자들과 신학도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권력남용과 폭력에 대해 증언하며, 함께 기도하고 화해의 길을 찾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곳을 에워싸고 있던 어둠과 공포, 슬픔의 기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남미에서 온 친구들은 미국 비밀 군대(SOA)가 자국에서 자행했던 잔혹한 살상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은 종교간 갈등이 빚고 있는 종족 말살의 어두운 역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온 여성들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들인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여성들의 삶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의 실체들이 우리의 증언을 통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우린 한 가지 사실을 무섭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폭력들이 '합법화된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며 그 중심엔 '국가권력 state-power'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합법화된 폭력만큼 무섭고 파괴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가해자는 없습니다.

국가와 여성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어느 시대나 국가주의와 애국이 사회의 아이콘으로 등장할 때면, 또는 국가가 팽창이란 욕망에 휩싸일 때면 그 사회의 여성과 어린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이 욕망의 희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국가는 여성들에게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칠 애국자들을 출산하라, 국가 이데올로기를 교육시키라, 더 나아가 여성들의 몸까지 국가를 위한 제물로 바치라고 강요했습니다. 국익이란 이유로, 안보란 이유로 국가권력은 수없이 많은 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쉽게 희생시켜왔습니다. 여성들에게 국가는 특히 더 무겁고 두려운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여성들의 생명 중심의 삶에 반해 자녀와 가족을 전쟁터로 내몰고 여성 자신들의 몸과 삶 또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전쟁과 군사주의적 폭력의 주체로 국가를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폭력은 국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성과 국가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적 법률과 제도 등으로 남성의 힘을 강화 유지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분포나 소득격차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일본군'위안부' 배상과 법적 처벌 문제, 이주민 여성노동자들의 인권 등, 국가는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역사 안에서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국가폭력"

2014년 4월 16일 이후 우리 여성들은 '국가'의 존립이유에 대해 이전보다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란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력남용의 실체들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그 모습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선박의 유리창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구명조끼를 입은 채 선실에서 어른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하지만 단 한 명도 살아오지 못한 현실을 보며 우린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사 이후 1년 반의 시간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이란 유가족들과 국민적 갈망은 수렴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작업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어떤 세력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우린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국가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어머니가 한 간담회에서 "저는 이 참사 이후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이름은 국가입니다"라며 세월호 가족이 겪은 국가에 대한 경험을 참으로 아프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젊은이들의 헬조선이란 비관처럼, 국가적 책무를 망각한 정치집단에 의해 많은 분들이 지옥과 같은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폭력은 그 양상과 질이 더 악해졌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일상화된 경찰폭력과 국정원의 자국민 감찰, 그리고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오직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임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경험하는 국가폭력의 양상들은 어떠합니까? 네 가지의 심각한 국가폭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는 과거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던 독재에서 이제 첨단 정보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독재로 진화했습니다. 종편과 SNS를 이용한 왜곡된 정보들과 조작된 여론몰이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밀실정치를 통하여 국가의 중대한 사안들을 독재 권력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안몰이로 사회변화의 욕구를 억압했던 방식의 회귀, 곧 더 진화한 '악마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시체장사'라는 말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악마화했던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은 역사국정화에 반대하는 이들을 공공연히 좌파나 종북이라 악마화하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 이 나라에선 권력 자체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 많은 사건들이 조작되어 출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사건들이 아닌 국가기관에 의해 짜 맞추어 조작된 사건들이 사회의 여론을 이리저리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듯 세월호 참사 그 과정도 이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부정에 대한 비판 열기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 전체를 조문정국으로 몰아넣으며 대선부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덮어버렸습니다. 또한 간첩 조작 사건, 남북간 군사충돌 등 권력이 위기 때마다 터지는 국면전환용 사건들은 한국정치의 단골 테마들입니다. 바로 한국의 국가폭력의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정한 권력은 권력의 재생산과 유지를 위해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왔습니다. 희생양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그 폭력성을 감가시키기 위해 희생되는 대체물을 의미합니다. 권력 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이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힘없는 이들이 자살이나 의문의 죽음이란 방식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함께 정국을 이끌던 중요한 이슈들은 대중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

습니다.

디지털 독재, 악마 만들기, 사건조작과 희생양 낳기 등 이렇게 예전 어떤 독재보다 더 추악해진 현재의 권력이 추구하는 목표는 단 한가지로 보입니다. 바로 국민들을 국가의 부속물로 만드는 것, 권력 그 자체가 숭배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회의 약점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그 사회가 대화의 소재로 삼기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역화된 영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권력이었습니다. 분단과 정전이란 상황을 악용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던 집단이 한국의 현대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국가를 성역화, 절대화, 신화화했습니다. 국가 그 자체가 하나의 신성불가침한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국가적 실책이나 반민주적 처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신앙적이지 않다고 가르쳐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권력이 종교권력과 결탁하고 이들을 이용해 사회여론을 왜곡시키는 움직임에 대해서조차 교회는 이를 옹호하거나 묵인하곤 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을 말하지만 사실은 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성역화된 데는 교회의 책임 또한 크다는 사실 앞에 부끄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건설된 그 어떤 체제나 권력도 절대화시키거나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지상의 권력과 구별되는, 차이나는 세계를 보도록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대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생명, 평등, 평화, 차별 없는 나라, 사랑의 문화가 지상의 국가와 차이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의 체제와 권력을 비판하며, 이 빛을 따라 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덧붙여 지상의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전통적인 신학적 정치관에 대해서도 더 깊고 철저한 성찰이

요청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권력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길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무력으로 짓밟는 강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권력도, 체제도, 질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숭배될 때, 비판에서 제외될 때, 바로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상화된 권력에 대해서는 항상 '예언자적 비판과 성찰'을 위한 '거리와 공간'을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자기숭배에 빠진 권력을 폭로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권력 감시와 비판, 그리고 생명평화의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노력은 망각할 수 없는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국가권력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민중(데모스)들에 의해 선택된 한시적 공무임을 기억합시다.

국가폭력은 국가의 존립이유를 망각한 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힘의 구조적인 남용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성서의 예언자 전통은 일관되게 권력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이들의 존립 이유가 공동의 선을 위해 있기 때문이며, 권력이 부패할 때면 언제나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무질서는 수단과 목적이 뒤집힐 때 발생합니다. 국가, 군대, 경찰, 법률, 정치 기구들과 같은 '수단'이 그 자체로 상위의 목적으로 탈바꿈할 때 그곳엔 반드시 권력남용이 발생하며, 특히 자기 권리를 보장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층이 이러한 권력남용의 최대 희생자가 됩니다. 권력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다 상위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 권력은 존재할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민의와 약한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권력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자들의 오만과 거짓을 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러한 권력남용이 빚어낸 국민적 희생과 사회의 부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너진 한국 사회의 정의를 보며 다시 두 가지 원칙이 바로 세워질 것을 기도합니다. 첫째, 공동의 선이란 국가의 목적을 위해 철저한 민주주의의 원칙과 민의를 훼손하지 않는 절차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오늘 시편기자가 국가공동체의 공

무를 담당하는 이들의 존립 이유를 “하소연하는 약한 이들,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들, 억압과 폭행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함(시편 72, 12-14)”이라고 밝히듯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이들의 생존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가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한국사회의 국가폭력에 대한 비판 작업을 교회와 여성들이 앞장서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그 사회의 가장 기층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던 그 뜻을 기억하며 이어받아,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세월호 가족들이 꿈꾸는 샬롬의 나라, 친절하고 평화로운 국가, 인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오늘 국가권력에 희생당하는 이들의 울부짖음과 탄원의 눈물을 보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폭력과 이들의 독재적 국가주의에 반대하며 저항합시다. 권력의 자기숭배나 성역화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이 시대의 징표에 대한 여성들의 분별이며 응답임을 분명히 합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폭력을 묵인하고 가부장적 힘의 질서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모든 시도에 저항하며, 교회와 사회에 성평등한 원칙과 제도, 법률이 바로 세워지도록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높입시다. 만연한 국가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절망의 벽 앞에 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희생당한 여성들의 인권과 삶의 회복을 위해, 이제 우리들이 ‘국가의 변화’를 이끌어갑시다. 생명평화의 사회,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 다수의 공동선을 구현하는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우리들의 다짐과 발걸음 위에 연약한 이들의 벗되신 예수그리스도의 은총의 빛, 지혜와 용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 폭력으로 인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문 1】

- 국가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

우리의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이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과 선과 미가 되시기에 오직 당신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악함과 추함을
거짓되게 치장하며 찬양할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시는 당신께서 계시기에
거짓을 거부할 힘과 용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시고,
심장 소리를 들으시며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께서 만드신 각각의 피조물들을 하나로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굴도 심장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추악함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주소서. 약하고 처지는 자식이 더 마음이 쓰이고
애달픈 어미처럼 하나님께서는 힘없어 눌리고 고통당하는 이의
울부짖음과 탄식에 마음 빼앗겨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찢어지는 심장의 절규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도 함께 아파하며, 함께 얼싸안고 부둥켜안아 함께 울게 하소서.

얼굴도 심장도 가지지 못한 나라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찢기고 아파하는 당신에게 얼굴을 향하고, 귀 기울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소서.

평화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2】

- 세월호로 인해 상처 받은 이들을 위하여 -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탄식하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소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족의 상실만이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 앞에서
몸부림쳐 온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소서.
망각이 아닌 기억 안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조속한 인양,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없이는 온전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정당한 권리와 요구를 묵살하는 한국 정부로 인하여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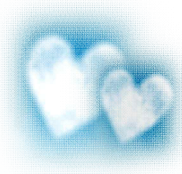
생명을 낳고 기르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한국 정부의 권력남용을 고발하오니
'굽은 것들이 정의로운 얼굴로' 활짝 기지개 펴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떠나간 이들 생각에 아파하는 가족들 곁엔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부모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앞에 또 다시 어두운 미래가 놓이게 될까 두렵습니다.
참된 평화와 행복, 안정과 안전, 격려와 약속이 있는 미래를 허락하소서.

그러나 한국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 위험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더 이상 발붙이고 살지 못하는 사막처럼 이 사회는 변해갑니다.
자본과 권력집단이 사회 곳곳을 죽음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소서. "환상이 없으면 백성은 멸망한다."는
말씀을 보며 우리는 '샬롬'을 꿈꿉니다.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꿈꿉니다.
억울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낳지 않는 공정하고 친절하며,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과 안전망이 세워지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눈물어린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기도문】

혼돈과 무지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가 힘겨운 것은
숨겨진 인간의 계획과 욕심을 드러내고 이를 포기하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투덜거림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양을 반대합니다.
너무나 똑같은 이유를 대며 하는 그 말에는 유다처럼
자기 주머니로 들어와야 할 돈을 헤아리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싸한 포장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주여, 그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에 담겨 있는
돈 중심, 생명 경시, 공감 부재, 무지를 용서해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며, 무지로 인해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 죄 없이 어른들의 죄로 인해 죽어간 304명의 목숨과
그들을 보내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온갖 소리로
숨죽여 울고 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통해
이 시대의 죄악과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회개 가운데 다시 부활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원고 유예은 어머니

(NCCK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기도자료집' 중 발췌)

【우리의 다짐】

1. 온전한 국민으로서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2. 국가권력 유지를 위하여 생명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겠습니다.
3. 국가권력의 폭력과 독재적 국가주의에 반대하며 저항하겠습니다.
4. 전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폭력에 저항하겠습니다.
5. 교회와 사회 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 참여하겠습니다.
6. 교회와 사회에 성평등 제도, 법률이 세워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7. 진실한 회개와 말씀 성찰을 통하여 어둠을 물리치겠습니다.
8. '나의 것'을 줄이며 '함께' 사는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9.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 생명 존중,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을 하겠습니다.

1) 나는 _____을(를) 하겠습니다.

2) 나는 _____을(를) 하겠습니다.

3) 나는 _____을(를) 하겠습니다.

* 국가폭력이 사라지는 그 날, 여성과 남성의 평화로운 삶, 창조의 때와 같이 서로 어울리는 삶(창 2:24)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여한 이들】

공동집필진

이은주 목사(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쁜이 사제(대한성공회 원주교회)

최소영 목사(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기획정책실장)

한국염 목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홍보연 목사(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부원장)

편집·제작

황보현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간사)

여성위원회 위원

강경신 목사, 남궁희수 목사, 남상준 목사, 박다임 목사,
박선희 목사, 성영자 목사, 송재룡 교수, 신미숙 목사,
온영숙 목사, 윤정미 목사, 이규화 장로, 이미화 사관,
이쁜이 사제, 이승미 권사, 이윤정 총무, 이은주 목사,
이주영 부장, 이혜진 목사, 인금란 목사, 임희숙 목사,
장미선 목사, 최선희 사관, 최소영 목사, 태동화 목사,
한국염 목사, 홍보연 목사 (이상 26명, 가나다순)

*NCCK 여성위원회가 후원하여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는 하소연하는 빈민을 건져주고

도움 받을 데 없는 약자를 구해주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에 시든 자들을 살려주며

억울한 자의 피를 소중히 여겨

억압과 폭력에서 그 **목숨** 건져 주리이다."

(시편 72편 12~14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 성 위 원 회